

한국계 미국 연극의 문화지형도 읽기: 성 노와 줄리아 조의 작품을 중심으로

정미경

동국대 영문과 강사, 현대영미드라마 전공
ringuk@hanmail.net

- I. 서론
- II. 한국계 미국 연극의 형성과정과 문화적 배경
- III. 90년대 이후 한국계 미국 희곡의 특징:
성 노와 줄리아 조의 작품을 중심으로
- IV. 결론

I. 서론

최근 미국 연극계뿐만 아니라 한국 연극계에서도 한국계 미국 극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아시아계 미국 연극 무대에 비해 30년이나 늦은 90년대에야 비로소 등장한 한국계 미국 연극은,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연극계 전반에 결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성 노(Sung Rno), 줄리아 조(Julia Cho), 다이아나 손(Diana Son), 영진 리(Young Jean Lee) 등으로 대표되는 2세대¹⁾ 한국계 미국 작가들은 미국의 권위 있는 연극 상을 수상하거나 대중들과 평단의 이목을 끄는 문제작들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새 밀레니엄 시대 미국 연극계의 총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세대 한국계 미국 극작가들의 작품에 담긴 새로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아시아계 미국 연극계가 강조한 ‘인종과 정체성’이란 주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기존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의 의무감, 즉 왜곡된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를 바로 잡고 진실된 아시아계의 목소리를 재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 그 대신 다채로운 극적 실험과 관점을 통해 차별에 대한 작가 고유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엿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1세대 한국계 미국 작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계’, 혹은 ‘아시아계’라는 민족성과의 관계가 시뭇 대조적으로 느껴질 만큼 멀어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계 미국 문학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강용홀이나 린다 수 박(Linda Sue Park) 등의 작품은 민족지적 소설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한국성(Koreaness)’에 대한 기억, 향수, 이방인 혹은 경계인으로서 느낀 고독 등의 정서 등이 주제화되어 있었다.²⁾ 이에 비해 2세대 작가들의 작품에서 한국성은 여전히 정체성 형성의 주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자아 형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문화의 뿌리로 인식되기보다는 세대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갈등의 원인으로

1) 한국이민 100년사에 비추어보면, 1990년대 이후의 한국계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3세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계 미국 연극의 경우는, 1960년대에 활동한 배우이자 극작가인 오순택, 수잔 김 등을 1세대로 간주하고 90년대 이후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을 2세대로 지칭하기로 한다(이미원, 「한국계미국대표 극작가와 그 작품 세계」, 『한국연극학』 37호, 5-6쪽 참고).

2) 임진희, 「한국계미국문학의 한국성」, 『현대영미소설』 14권 2호(2007), 157쪽.

등장한다.³⁾

이러한 2세대 한국계 미국 희곡작가들의 태도는 미국과 한국 연극계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들의 작품이 공연될 때마다, 지금 여기에서 아시아계 미국 연극, 나아가 미국 연극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계 미국 연극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이러한 새로움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자기 중심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가령, 미국의 백인 비평가들은 줄리아 조의 작품을 두고 서구 문학 정전의 흔적이 만연하며 인종 차이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한국계 미국 여성 인물이 억압된 기억을 끄집어내고 인물들과의 공감을 나눌 때는 그 감정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거나 이를 신인작가의 능력부족으로 치부해 버림으로써 여전히 서구 백인 중심적 비평기준으로 평가하는 구태를 보인다.⁴⁾

한국사회의 상황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라는 점에서 그리 다르지 않다. 성 노의 작품 『이상 열셋까지 세다』(*Yi Sang Counts To Thirteen*)가 세계적인 연출가 리 부루어(Lee Breuer)에 의해 2009년 서울에서 재공연 되었을 때나, 뉴욕타임즈에 의해 완벽한 코미디로 극찬을 받은 영진 리의 『용비어천가』(*Songs of the Dragons Flying to Heaven*) 뉴욕 공연 소식이 국내에 기사화될 때도, 한국계 미국 연극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한민족 공동체’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⁵⁾ 주지하다시피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과 그들의 문학적 특징은 한민족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이며, 한국과 미국사회 모두로부터 파생된 잡종(Hybridity) 문화로 진화해 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세대 한국계 미국 작가들은 90년대 이후 한국계 미국인 문화와 정체성을 다룰 때 한국성과의 근접성보다는 거리감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3) 이 글에서 2세대 작가군과 비교대상으로 삼은 1세대 작가들은 대부분 소설가이다. 그 이유는 1세대로 분류할 만한 한국계 미국 극작가의 작품 활동이 미비했고 그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르를 초월하여 비교하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 논문은 작품에 나타난 한국성의 발현이란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계 미국 작가들의 세대별 특징을 비교할 것이다.

4) Graydon, Royce, "Broader Identities; For Tony-winning Playwright David Henry Hwang, ethnicity is no longer center stage in Asian-American Theater", *Star Tribune* (MN)(Aug. 22, 2004). <http://highbeam.com/DocPrint.aspx?DocId=1G1:121156482>.

5)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60927172814992&p=yonhap>

것이다.

인종 정치적 무대로부터의 탈피, 한국성으로부터의 거리 두기로 요약되며, 기존 비평의 틀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2세대 한국계 미국 극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한 작가 개인에게 국한된 특징이 아니라 2세대 작가들의 공통된 양상이라는 사실이다. 즉 2세대가 경험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1세대 작품들과의 미학적 차이를 견인해 내고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세대 한국계 미국 극작품의 경우 그들만의 미학적 차이를 규명하는 작업은 작품 텍스트에 대한 내적 분석으로는 불충분하며, 사회 문화적 요인을 비롯한 텍스트 외적인 분석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비평가들을 향해 아시아계 미국 작가의 인종, 민족적 배경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인임을 역설했던 한국계 미국 문학평론가 일레인 김(Elaine Kim)의 우려⁶⁾는 포스트모던한 미학이 도드라지고 민족성이 공공연하게 폐기당하는 듯 보이는 최근 한국계 미국 연극 감상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딕테』(Dictee)의 다양성과 비결정성과 같은 개념의 배치를 높게 평가했던 서구비평가들과는 달리, 한국계 미국 여성이라는 작가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소외된 일련의 경험들을 전복적 텍스트로 읽어냈던 일레인 김처럼, 2세대 한국계 미국 연극에 부정적으로 전경화되어 있는 한국성의 의미를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2세대 한국계 미국 연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계 미국 연극이 백인 중심적 인종차별과 맞서 지난하게 걸어온 과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90년대에 나타난 미국의 다문화적 사회맥락에 대한 인식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한국계 미국 연극 작품에 대한 텍스트 중심적 연구가 아닌 텍스트 외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즉 주제와 인물과 미장센에 대한 의미 탐구라는 미덕을 버리는 대신 사회 문화적 사실과 배경을 정리하고 추적하는 의무를 택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90년대 이후 한국계 미국 연극의 문화지형도를 읽어내기 위한 두 가지 기초적인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첫 번째는 한국계 미국 연극이 태생적

6) Kim, Elaine, "These Bearers of a Homeland", *Korea Journal*(Autumn, 2001), p.189.

뿌리를 두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 연극의 형성과정과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인종 정치적 무대에서 포스트모던 탈정치적 무대로 변화하기까지 아시아계 미국 연극 안팎의 논쟁들을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는 2세대 한국계 미국 극작가 성 노와 줄리아 조의 연극에 나타난 독특한 한국적 감수성을 ‘잡종성, 서벌턴적 존재, 디아스포라’의 가설적 개념을 이용하여 구체화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어떠한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도출된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II. 한국계 미국 연극의 형성과정과 문화적 배경

1. 아시아계 미국 연극의 형성과 변화

아시아계 이주민들은 19세기부터 미국사회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문학과 문화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종종 현실과 다른 왜곡된 이미지로 나타났다. 백인 중심적 문화 속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경험한 제도적, 문화적 인종차별은 유럽계 이민자들에 비해 더 심했고, 특히 예술 작품에서 백인 작가들이 재현하는 그들의 모습은 “공손한 시종, 음흉한 탐정, 악랄한 요부, 인형처럼 순종적인 중국여성(China Doll),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신비로운 현인, 피에 목마른 ‘중국 놈’이나 ‘일본 놈’”으로만 나타났었다.⁷⁾ 19세기 말 이후로 미국 백인 문학과 연극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극중 인물로 종종 등장했고 이민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소극형식의 연극이 공연되기도 했지만, 미국사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스스로를 재현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대부분의 아시아계 미국 연극비평가들은 1965년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극단인 ‘동서 연희패(East West Players)’가 설립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진정한 연극사가 시작되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한 주장에는 이 극단이 형성되기 전까지 미국의 연극무대에서 재현되었던 아시아계 미국인의 모습은 진정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항의와 비판이 담겨

7) Berson, Misha, Ed., *Between Worlds: Contemporary Asian American Plays*(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1990), p. x.

있다. 무대 위에서는 비하된 동양인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미국인 출신 배우들이 주류 연극무대에 설 기회는 드물었다. 그들이 연기해야 할 동양인 배역을, 동양인으로 분장한 서양인 배우가 맡았기 때문이다. 백인 배우들은 동양인의 외모로 믿게끔 보일 수 있는 화장술이나 가면, 머리 모양, 복장 기교가 설명된 책자를 보고 분장을 했다. 무대 위에서 백인 배우는 백인의 관점에 맞춘 전형적인 동양인의 이미지를 연기했고 백인 여배우가 무대나 영화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연기하는 것도 낯선 풍경은 아니었다.⁸⁾ 아시아계 배우들은 드물게 배역이 주어지 무대에 오를 기회가 생겨도 전형화되고 비하된 동양인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예술적 욕망을 발현할 수 없었던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하던 아시아계 연극인들은 60-70년대 흑인공동체의 정치적 운동에 자극을 받고, 마침내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 연극단인 '동서 연회패'를 창단하여 그들만의 연극을 도모하게 된다. 창립 구성원들은 마카토 이와마추(Makato Iwamatsu), 팻 리(Pat Li), 가이 리(Guy Lee), 오순택(Soon-Tek Oh) 등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던 일본계, 중국계, 한국계 배우들이었으며 그들이 내세운 것은 백인 문학에서 왜곡된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재현을 바로 잡고 '진실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동서 연회패'와 지향점을 공유했던 70-80년대 아시아계 연극집단은 주로 사실주의 극형식을 통해 '진실한' 그들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연극을 통한 아시아계의 저항 운동을 주도해 왔다.

특히 70년대 연극계는 프랭크 친(Frank Chin)의 등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다. 프랭크 친은 '미국 콘서버토리 극장(America Conservatory Theatre)'의 후원을 받으며 자신이 창설한 '아시아계 미국 극단 연구회(Asian American Theatre Workshop)' 무대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 최초의 성공작으로 꼽힐 만한 『닭장 속의 중국인』(*Chickencoop Chinaman*)을 공연한다. 이 공연을 통해 친은 미국사회에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의 존재와 목소리를 알리게 되었고, 평단의 주목을 받으며 두 번째 작품인 『용띠 해』(*The Year of the Dragon*)를 뉴욕의 주류 무대 위로 올리는데 성공한다. 친의 업적은 70년대 아시아계 미국 연극사를 전유할 만큼

8) Lee, Josephine, *Performing Asian America*(Philadelphia: Temple UP, 1997). p.12.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미국 연극이 미국의 주류 무대로부터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는 80년대 데이비드 헨리 황(David H. Hwang)의 작품 『M. 나비』(*M. Butterfly*)의 대중적 성공이다.

황을 비롯하여 필립 칸 고탄다, 벨리나 하수 휴스턴(Velina Hasu Houston)으로 대표되는 80년대 극작가들은 이전의 작가들에 비해 젊고 차별적인 특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2세대 아시아계 미국 작가로 분류된다.⁹⁾ 이들의 특징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 1세대의 업적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 전문극작가라는 직함을 가지고 주류 연극무대에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그들은 프랭크 친의 문화 민족주의적 경향을 넘어서 아시아계 미국 연극을 긍정적이고 희망찬 감수성으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당시 집권했던 레이건 정부의 보수적 다문화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을 벗어나 개인적인 차원의 문화적 성공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아시아계 미국 연극의 한계를 보여주었다.¹⁰⁾ 90년대의 아시아계 미국 연극은 2세대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의 개인적 성공 신화를 넘어 다양한 아시아계 집단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다면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실험하게 된다.¹¹⁾

90년대 이후로 아시아계 미국 연극계가 변화하게 된 중요한 사회 문화적 계기는 1965년 시행된 미국 이민법의 개정이다. 이 이민법 개정을 기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아시아계 이민 사회의 상황이 90년대 연극계의 지형도 변화를 견인하게 된 것이다. 65년 이민법이 개정되어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포함한 새로운 지역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대거 증가하였고 그들의 문화와 사회적 위상은 미국사회의 아시아계 미국인의 지형도를 크게 바꾸게 된다. 가장 커다란 변화 중 하나는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조 이민자들로부터 몇 세대 걸쳐 내려온 후손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미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아시아 민족임을 부각시키고 출신 민족과의 문화적 연계성을 당연시한다. 다시 말해서

9) Lee, Esther, *A History of Asian American Theatre*(New York: Routledge, 2006), p.124.

10) Lee, Esther, *Ibid.*, p.127.

11) Lee, Esther, *Ibid.*, p.2.

새로운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미국 문화에 동일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문화를 미국 문화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며, 그 결과 미국 문화에 혼종적 특성을 본격적으로 부여하는 주체들이 된 것이다.

새로운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출신국가는 남베트남, 남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다양하며 이 국가들로부터 새로 이주한 공동체가 기존의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계 후손들과 섞이게 된다.¹²⁾ 극동 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초기 아시아계 미국 연합집단은 일본, 중국인을 중심으로 단일한 아시아계 미국인 정체성을 주장했지만, 90년대 이후로 그 주장은 새로 형성된 아시아계 이민자 공동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이상 대변할 수 없었다. 70-80년대에 프랭크 친과 함께 ‘문화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를 주장했던 일레인 김이 스스로 평가했듯이, 단일한 정체성은 소수 집단인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가 백인 중심의 지배담론에 저항하기 위한 문화운동이라는 점에서 시대적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새로운 아시아계 이민 집단의 출현과 그들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는 90년대에 단일한 아시아계의 정체성은 오히려 다양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억압하고 침묵시킴으로써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¹³⁾

리자 로우(Lisa Lowe)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문화는 물려받은 것, 교정한 것, 새로 만든 것이 섞인 관습들로서 이질적인 문화들이 공존하고 혼종된 것이다. 문화 민족주의 담론이 인종을 매개로 하여 아시아계 미국인의 단일한 정체성을 규정한 반면, 로우가 이종성, 혼종성, 다양성으로 요약한 특징들은 인종 이외의 여러 다른 요인들, 계급, 민족, 성별, 개인적 경험 등을 고려하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전제로 한다. 즉 아시아계 미국인의 공동체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아시아계 미국인이라 용어는 자칫 일본계나 중국계의 경험이 아시아계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¹⁴⁾ 아시아인을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는 인종적 편견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지배 문화에서

12) Lowe, Lisa, *op. cit.*, p.7.

13) Kim, Elaine, “Foreword”, *Reading the Literatures of Asian America*, Eds. Shirley Geok Lin Lim and Amy Ling(Philadelphia: Temple UP, 1992). pp.xi-xii.

14) Lowe, Lisa, *Ibid.*, p.65.

아시아인들이 소외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비지배 집단을 복속시키는 이분법을 만들어 아시아계 남성과 여성 혹은 중국계와 다른 아시아계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¹⁵⁾

혼종적인 이민자 문화의 영향권에 속하는 90년대 이후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을 기존 작가들과 구분 짓기 위해 이스터 김 리(Esther Kim Lee)는 제3작가 세대라고 부르면서, “본질적 정체성에 대한 거부”로 그들의 특징을 요약한다. 이 작가들은 문화적 민족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성의 핵심으로 여겨왔던 인종이나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로 변경한다. 또 그들은 자신의 선조들과 역사를 주장했던 기존의 작가들과 달리 선조와의 거리를 형성하고 역사성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제3작가 세대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미국과 아시아, 둘 중 어느 문화에도 소속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소외감은 동시대 미국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을 드러내는 보편적 은유로 확장된다¹⁶⁾.

인종과 역사적 범주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 90년대 이후 작가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주제는 아시아와 아시아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관점이다. 캔디스 추(Kandice Chu)와 카렌 시마카와(Karen Shimakawa)에 따르면 아시아계 디아스포라는 “(아시아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식론적 대안으로서 관계 자체를 의미하고, 출신지 역과 현재 위치를 개념적으로 비교하는 일종의 신분등급을 가리킨다. 은유라기보다 환유에 가까운 이 비교는 이동 자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며 민족과 문화의 순환 자체에 집중하고 그 이동의 비유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¹⁷⁾

이러한 아시아계 디아스포라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극단으로는 90년대 미네소타 지역에서 창단된 극단 ‘무(Mu)’를 예로 들 수 있다. 극단 ‘무’는 그 지역에서 아시아계 이민자의 수가 최근 급증했고, 특히 한국계 입양아 인구가 많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공연의 성격을 조절했다. 극단 ‘무’의 연출가 릭 시오미(Rick Shiomi)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스스로 미국인임

15) Lowe, Lisa, *Ibid.*, p.71.

16) Lee, Esther, *op. cit.*, p.204-205.

17) Chuh, Kandice & Karen Shimakawa, Eds., *Orientation: Mapping Studies in the Asian Diaspora*(Durham: Duke UP, 2001), p.7.

을 증명하기 위해 서구의 극형식을 고집했던 전통적인 아시아계 미국 연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기존의 아시아계 미국 극단은 “미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자신은 이 지역 인구의 대부분이 65년 이후 새로 형성된 아시아 이민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문화적 뿌리가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라는 현실을 직시한다.¹⁸⁾ 그는 아시아 각 종족들의 문화에 집중하려는 의도에서, 한국의 전통 탈춤과 서구의 서사 형식을 결합하는 공연을 기획하여 대중적인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90년대 아시아계 미국 연극의 주제는 인종 중심에서 민족, 계급, 성별 등의 다양한 요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적 관점을 바탕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은 물론 미국 외부 지역의 아시아인들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시대인식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새로운 주제의식과 더불어 새로운 극 형식의 실험 역시 아시아계 미국 연극의 특징에서 빼놓을 수 없다. 90년대의 작가들은 ‘진실 말하기(telling the truth)’에 몰두하는 사실주의 연극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적 경로를 찾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베케트식의 부조리극으로부터, 슬랩스틱 코미디, 40년대의 로맨스 극, 뮤지컬에 이르는 다양한 극형식을 볼 수 있다.¹⁹⁾

이러한 아시아계 미국 연극계의 변화는 성 노, 줄리아 조와 같은 한국계 미국 극작가들의 출현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60년대 초반 아시아계 미국 연극의 흐름을 주도했던 중국계, 일본계 미국 극작가들에 비해 90년대가 되어서야 연극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한국계 미국 극작가들이 어떠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작품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2. 한국계 미국 연극 형성의 사회 문화적 배경

90년대 이후 등장한 한국계 극작가들의 작품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갖게 되는 ‘한국적 감수성’이다. 한국적 감수성이란 일본계, 중국계, 필리핀계 극과 구분될 만한 한국계 미국인만의 고유한 무의식이

18) Lee, Esther, *Ibid.*, p.215.

19) Shimakawa, “Ghost Families in Sung Rno’s *Cleveland Raining*”, *Theatre Journal* 52, 3(2000), p.382.

자 문화, 역사적인 배경을 의미한다. 한국계 미국 극작가들의 작품에서 한국적 감수성은 한국인의 일상을 상징하는 김치, 한국 전래 설화와 같은 문화적 지시어로 나타나기도 하고, 역사적 사건들이 호출되면서 더불어 드러나기도 한다. 극의 주제, 혹은 배경으로 깔려 있는 역사적 기억들, 한국 근·현대사로부터 비롯된 피지배의 기억,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벗어나기 어려웠던 계급적, 문화적 소외계층으로서의 경험이 한국계 미국인의 고유한 감수성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계 미국인의 감수성은 한국계만의 독특한 경험과 역사적 기억, 문화적 영향력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복합적 문화는 1세대인 초기 이주민과 2-3세대인 후손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주어 문학작품 속에서 독특한 인종시학으로 육화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 감수성을 형성하게 된 첫 번째 역사적 사례를 들면, 최초의 한국계 이주민들이 하와이 농장에서 파업을 일으킨 일본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한 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은 백인사회의 이득을 위협하는 일본계를 위시한 아시아계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같은 아시아인인 한국계를 이용하여 무마하려던 미국사회의 용병이었던 것이다. 하와이 노동자로 시작된 한국계 미국 이주민들은 처음부터 미국사회에 동화하는 소수 모범인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미지와 달리 초기 한국계 미국인들은 백인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노동계급으로 전전하는 등 미국 정부가 유포한 소수 모범인종 신화의 피해자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계에 대한 배신자 이미지는 강력했다.²⁰⁾

65년 이민법 개정 후 한국계 이민자의 직업과 출신은 전문직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였지만, 대다수 한국계 미국인의 공동된 정서는 여전히 지배 담론으로부터 소외받는 하위계층의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초기

20) You, Clare and Ha, Yangwon, "Korean American Literature and the Visual Arts: These Bearers of a Homeland",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Eds. Kim Seong Kon and Lee So Hee(Seoul: IACKS and SNU/ASI, 2004), p.215.

21) 한인이민에 대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미국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형성되는 계기는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초기 하와이 이민(1902-1944), 한국전쟁 전후 이민(1945- 1964), 65년 미국 이민법 개정 이후의 이민(1965년-현재)으로 구분된다. 1902년 12월 102명의 조선인이 하와이 농장의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1906년에는 미국 이민자 수가 7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본토로 이주해 미국의 탄광노동

이주과정부터 최근 경제이민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계 이민자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인이었거나, 해방 후에도 (남한사회의 경우) 미군정에 통치를 받는 신생독립국의 약소국민이거나 미국의 신식민지적 경제구조에 편입되어 전 지구적 자본에 묶인 식민 상태의 노동자 신분에 가까웠다. 그리하여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라이벌을 자처하고 일등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본계 미국인의 경우와 달리 한국계 미국인들은 백인-일본계와 유럽계-아시아계로 서열화되는 삼등시민의 자리에 있는 하위계층으로서 본국과의 관계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²²⁾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삶은 미국 내부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고 미국과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즉 아시아계 미국인은 공식적으로는 미국 시민이지만 사회구조적인 인종차별의 관행으로부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종종 처한다. 미국 백인 중심 문화의 아시아권에 대한 오리엔탈적 시각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식에도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미국사회의 태도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행사했던 제국주의적 성격을 반영하게 된다. 캐서린 문(Catherine Moon)이 지적하듯이 남한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종속을 자청한다.

자나 철로 공사장에 유입된 조선 청년들은 고국에서 신부를 찾는 이른바 사진신부(picture bride)들과 결혼했는데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 식민지 당국의 허가로 미주로 건너간 사진신부의 수는 약 천여 명에 이르렀다. 두 번째 시기는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의 이민이다. 소수의 유학생이 미국으로 학업이민을 떠났다가 정착한 경우이다. 이들과 별도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른바 전쟁신부(war bride)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이민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1951년부터 1964년까지 미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한 전쟁신부는 약 2만 8천여 명에 이른다. 홍경표, 「미주한인문학의 현황과 전망」, 『국제한인문학연구』(월인, 2004), 234-235쪽.

세 번째 시기인 65년 이후는 미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이동한 가족 중심적 노동인구의 국제적 이동성격을 띠었고, 군사독재정권을 피해 이주하는 정치적, 경제적 망명도 많았다. 사진신부, 전쟁신부에 이어 90년대 이후로는 지식인, 이주목적자의 초국적 이동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203-212쪽.

22) 중국계와 달리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사회에서 대접받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다. 19세기 말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될 때부터 독특한 일본 문화에 대한 서구의 관심과 열광이 바탕이 되었다. 게다가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서구에서 강대국의 위상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계 미국인들 역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계 이주민들은 나라를 잃고 일본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인이었으므로, 일본인임을 거부할 수도(한국인임을 주장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이중적 억압의 상태로 살아야 했다. Kim Lili, *op. cit.*, pp.31-52.

한미 동맹은 국제정치학에서 피보호자-보호자 관계로 자주 인용되는 사례이며 이러한 상황은 국가 간 권력 불균형과 군대 매매춘과 같은 질문들이 위치하는 맥락을 설명해 준다.²³⁾ 이러한 국가 사이의 종속적 관계로부터 미국사회는 한국계 미국인을 독립된 국가로부터 온 이주민이라기보다는 미군의 보호를 받아야 할 분쟁과 위험지역에서 온 아시아인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더 가깝게 생각하게 된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느끼는 하위계층으로서의 열등감은 미국사회에 대한 열성적인 동화과정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미국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삶은 소수인종모델에 충실한 이미지-바나나, 트윙키(Twinkie, 곱은 노랑고 속은 하얀 과자) 등-로 비하되곤 했다. 94년 로드니 킹(Rodney King)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소위 'LA 폭동(Los Angeles Upehvals)' 때와 같은 소수인종인 유색 인종 이민자 집단은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도움과 연대의 손길을 거부했다. 이는 백인 중심적 언론이 흑백 갈등을 감추고 한국계와 아프리카계의 갈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고수하면서 미국사회에 동화하려고만 했던 한국 이민자들에게 대한 거부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한국계 미국인들은 식민지배, 전쟁, 분단, 신식민적 지배, 인종 차별, 왜곡된 이미지 등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경험은 미국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미국의 국가적 서사와 충돌한다. 90년대 이후 등장한 한국계 미국인 작가들의 작품에는 감추어져 있던 한국계 미국인의 삶과 이미지와 기억들을 되살리는 시도가 많이 등장함으로써 동화된 미국 시민의 이미지로 일원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이 되살려내는 한국에 대한 기억들은 미국의 허구적 서사와 충돌함으로써 왜곡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의 모습에 의문을 제기한다.

3. 2세대 한국계 미국 연극에 나타난 한국적 감수성의 변용

90년대 이전까지 한국계 미국 연극분야는 물론 전반적으로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초기 이주민들의 언어적

23) 문 케서린, 이정주 옮김, 『동맹속의 섹스』(삼인, 2002), 37-38쪽.

장벽, 즉 작품을 쓸 만큼의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사탕수수 노동자였던 초기 이주 노동자들이나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아내가 되어 이주한 양공주 출신 여성들, 70년대에 건너가 중소상인에 머물렀던 이민자들은 대부분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1세대 한국계 미국 소설가인 김은국이나 강용흠은 영어로 작품을 썼지만 그들 작품에 나타난 지식인의 관점은 영어에 서툰고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대다수 이주민들의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²⁴⁾ 90년대 이후 등장한 2세대 한국계 작가들은 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이민 온 세대의 자식들이다. 영어가 모국어 혹은 모어²⁵⁾인 이들에 의해 비로소 한국계 미국 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계 미국 연극의 작품이 가장 늦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92년 LA 폭동을 겪은 후에야 미국사회에서 스스로의 인종적 정체성을 성찰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 특히 청소년이었던 2세대들이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적인 문화 활동을 맹렬한 기세로 벌여나간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흑백갈등으로 시작된 인종분쟁의 불똥이 한국계 이주민에게 튀면서 그들은 아프리카계와 멕시코계 미국인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 시기 한국계 미국인들은 언론과 시각 매체들로부터 영어가 서투른 이방인으로 묘사되거나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선전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인들에게 자기 가족과 돈밖에 모르는 게토지역의 상인들이라고 인식되었다.²⁶⁾ 이러한 경험을 통해 1.5 세대들은 그들의 모습을 가시화할 필요를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재현 정치학의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이민자의 삶과 한국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을 그들의 작품에 표현하게 된 것이다.

24) Kim, Elaine, "Korean American Literature", *An Interethnic Companion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Ed. King Kok Cheung(New York: Cambridge UP, 1997), p.156.

25) 서경식,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서울: 돌베개, 2006), 18쪽. 모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익혀 자신의 내부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말이며 한번 익히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근원의 말"이다. 통상 그것은 모친으로부터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모어'라고 한다. 한편, 모국어란 자신이 국민으로서 속해 있는 국가, 즉 모국의 국어를 가리킨다. 그것은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가가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가르쳐, 그들을 국민으로 만드는 장치이다.

26) Kim, Elaine, "Hybridity and Homeland: Contemporary Korean American Literary and Visual Art", 『미주한인이민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북미주 지역의 한국인"』 자료집(2002)(서울: 연세대학교 연세국학연구단), p.105.

2세대 한국계 극작가들도 한국계 미국인의 재현을 극의 중요한 소재로 삼고 있다. 그들은 한국계 미국인의 이미지가 왜곡된 이유를 일차적으로 미국사회의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문화로부터 찾아내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왜곡의 또 다른 원인을 한국계 이주민이 고유하게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로부터 추적하여 이를 극화한다. 그들의 작품은 부모와 선조들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다른 아시아계 이주민들과 구분되는 한국계 이주민의 독특한 민족적 감수성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서구 재현체계에서 단일하고 고정된 이미지로 재현되던 한국계 이주민들은 생생한 기억을 가진 현실적인 인물로 바뀌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체로 바뀌게 된다.

90년대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는 이주민의 2-3세대들이 화자가 되어 그들의 부모와 조상의 발자취를 쫓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구조는 한국계 미국 문학 작품에서도 종종 확인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세대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자신에게 존재하는 아시아계 문화 정체성을 확인하여 이주로 인해 상실한 혈통적 계통을 완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계 작가들은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잃어버린 혈통의 관계를 역지로 복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2세대 한국계 미국 극작품 가운데 특히 성 노와 줄리아 조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세계관에 주목하고, 이를 세 가지 열쇠인 잡종성(Hybridity), 서벌턴(subaltern), 디아스포라(diaspora) 개념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III. 90년대 이후 한국계 미국 희곡의 특징: 성 노와 줄리아 조의 작품을 중심으로

1. 전형적 재현 이미지에 대한 도전

미국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재현은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백인 중심적 편견의 영향으로 물개성적이고 전형화된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할 때는 일본사람으로 간주되어

탄압받았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이 구출해 온 창녀들과 입양아의 이미지로 미디어에 노출되었으며, 70년대 이후로는 부지런하고 교육열은 높지만 영어가 서툴고 사회활동에 인색한 영세 상인들의 모습이 대표적이었다. 이창래의 소설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에서 헨리(Henry)의 아버지나, 수키 김(Suki Kim)의 『통역사』(*The Interpreter*)에 나오는 부모의 모습은 “달랑 200달러와 형편없는 영어로 출발해 청과상으로 자수성가한 적지 않은 한인 이민자”²⁷⁾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에 비해 성 노와 줄리아 조의 극에 등장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표방하는 정체성은 본토의 한국인을 비롯하여, 한국계 미국인, 미국인, 심지어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존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 작가들은 한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삶을 인종, 민족, 계급, 성별,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미국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즉 아시아계를 비롯하여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단일하지 않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조건에 따라 형성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다양한 차이를 주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백인 중심적 재현체계에서 제시되는 한국인의 고정적인 전형성에 도전하게 된다.

고정화된 한국계 미국인의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계 극작가들은 한국계 이주민의 다양한 역사에 주목하고 공적 담론에서 소외되었던 한국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 김은국, 강용홀, 김난영 등의 소설가들로 대표되는 초기 한국계 미국 문학이 지식인, 남성, 민족의식, 미국사회에 대한 동화적 태도로 대변되었던 것에 비해, 2세대 극작가 성 노와 줄리아 조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하위계층 혹은 심리적 변두리에 속해 있는가 하면, 가부장제와 국가주의 민족담론에 침묵되던 여성들, 동양 여성에 대한 서구 남성의 시각에 억압받는 3세대 한국계 소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다. 가령, 성 노의 극 『비 내리는 클리브랜드』(*Cleveland Raining*)에서는 가족 중심적이고 모범적인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이미지를 위협하려는 듯 가족의 해체와 붕괴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작품 『파장』(*Wave*)에서도 전형적인 한국계 가정의 이미지가 전복되고 있다. 미국 문화에 동화된

27) 정은경, 『디아스포라 문학』(이름, 2007), 80쪽.

한국계 미국 남성 제이슨(Jason)과 미국사회에 서툰 이민자인 한국계 부인 M은 대조적인 세계관의 충돌과 과국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줄리아 조의 극에서는 특히 기존 한국계 미국 문학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계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백인 중심 문화의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는 한국계 입양인 남매, 아시아인(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한국계 미국인 소녀(『변두리』BFE),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었던 백인 남성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했으나 남편의 폭력과 사회적 냉대에 시달리다 죽은 한국 여성 노라(『상실의 구조』The Architecture of Loss) 등이 그들이다. 주목할 점은 줄리아 조의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계 미국 여성 인물들은 더 이상 ‘미국 속의 한국 여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1세대 소설가인 김난영의 『토담』은 한국계 여성의 눈으로 미국사회의 안팎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강하지만 2세대 극작가 줄리아 조의 한국계 여성들은 자신을 한국 여성으로 간주하려는 미국과 한국사회의 시선을 문제시한다.

이처럼 식민지배, 한국전쟁, 분단, 경제적 종속, 인종차별, 성적 억압, 계급적 불평 등의 기억으로 점철된 다양한 한국계 이주민들의 삶을 제시함으로써 성 노와 줄리아 조는 미국의 재현체계에서 왜곡되고 감추어져 있던 한국계 미국인의 존재를 찾아낸다.

2. 서벌틴의 저항

성 노와 줄리아 조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미국의 지배적 담론과 재현체계에서 소외되고 침묵하는 존재들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들이 지배담론인 미국의 국가적 서사에서 소외된 까닭은 미국 시민으로 동화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미국의 공식 서사담론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저지른 제국주의적 행동에 대한 기억을 버리고 못하고, 미국의 문화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삭제되는 인종적 정체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이주한 아시아계 이주민들 가운데는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되었거나 망명했거나 혹은 직접 미국의 제국주의적 통치를 받은 아시아 국가 출신이 많다. 그들은 미국이 그들의 고향에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시아계 이주민들에게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의 기억을 잊고 미국이 원하는 국가적 서사에 동조할 것을 문화적, 제도적으로 요구한다. 이주민들은 (미국정부가 강요하는) 공적인 담론과 (자신들이 경험한) 사적인 담론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사적 담론을 폐기하지 않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심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위축된 존재가 된다.²⁸⁾

그러나 지배담론으로부터 소외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중심적 위치에 놓인 지배담론을 위협하는 역-헤게모니적(counter hegemony) 주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소수문화와 다수문화의 관계를 억압과 저항의 변증법적 갈등 관계로 대치하여 이해한다면, 두 문화의 헤게모니 투쟁여부에 따라 서로의 위상은 바뀔 수 있다. 가령, 줄리아 조의 『상실의 구조』에서 한국 여성 노라의 침묵과 삭제는 지배담론으로부터 받는 억압을 의미하지만, 그들의 침묵을 해체적으로 독해하면 미국 중심적 문화로의 동화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저항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배문화로부터 소외받지만 침묵함으로써 동화를 거부하고 지배담론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한국계 미국 여성의 감수성은 가야트리 스피박이 정의했던 “서벌턴적 존재”들의 목소리에 견줄 수 있다.

스피박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프롤레타리아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던 “서벌턴” 개념을 제3세계 여성에 대한 서구 중심 담론을 비판하는 도구로 창조적으로 사용했다. 그녀는 서구 중심의 이론이 동양을 타자로 대상화하고 침묵시켰던 것처럼 서구 페미니즘과 탈식민이론과 같은 서구의 지식담론은 제3세계 피식민 민족을 주체로 인정하고 해방을 제시한다고 해도, 결국 제3세계의 여성을 타자화하여 침묵시킨다고 지적한다.²⁹⁾ 스피박이 사용하는 서벌턴 개념의 유용함은 바로 그들에 대한 인식의 어려움, 다시 말해 기존의 지배적인 정치담론으로 정의되지 않는 존재들의 종속적 처지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 입장에서 아우를 수 있다는 데 있다. 스피박은 서벌턴적 존재가 계급적 차별뿐만 아니라 종교의 거부장적 담론과 가족, 식민주의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층위로 종속되고 차별받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28) Lowe, Lisa, *op. cit.*, pp.1-36.

29) Spivak, Gayatri Chakravorty,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London: Mcmillan, 1988), pp.271-308.

그녀의 시도는 고정된 개념에 대한 인식의 해체, 나아가 실천적 저항법의 유연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³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계 미국 연극에 나타난 소외되고 침묵하는 존재들을 서벌턴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미국사회의 경제적 하층 구조에 머물고 있다는 계급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또 인종과 성별,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민족담론에 의해 중첩적 억압을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 여성들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계 미국 극작품에 나타난 서벌턴적 존재는 일차적으로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서구 중심적 담론으로부터 소외되는 인종차별을 겪는 이들이다. 그 상황에 더하여, 계급적 차이에 따른 차별을 받는 노동자나, 가부장적 억압과 같은 성적 차별을 받는 여성이나, 이성애 중심 담론에 침묵하는 동성애자들처럼 인종과 계급, 성별, 성애 등의 요인들로 다중적 억압과 침묵을 주요당하는 존재들도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성 노와 줄리아 조의 작품에 나타난 서벌턴적 인물은 계급적 억압을 포함하여 남성 중심, 백인 중심, 이성애 중심적 사회로부터 중첩된 억압을 겪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줄리아 조의 『상실의 구조』에서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했던 한국여성 노리는 전형적인 서벌턴 여성으로 볼 수 있다. 이 극에서 노리는 10여 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녀의 백인 남편과 혼혈인 딸이 말다툼하는 과정을 통해 언급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물로 부상된다. 두 사람에게 따르면 노리는 영어가 서툴러서 일자리는 고사하고 이웃과의 사고도 없이 한인 교회를 유일한 사회활동으로 삼아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랠고, 남편으로부터 이유 없는 구타와 욕설에 시달리고, 한국인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혼혈인 딸의 무시를 감내하는 등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모두 노리가 아닌 남편과 딸이라는 제3자의 입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사실상 노라의 목소리는 침묵된 채 들리지 않는다. 노라와 같이 그 동안 공식적인 기록이나

30)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서벌턴의 정의를 경제적 하위계층으로 제한했던 것과 달리 스피박은 여성을 서벌턴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즉 스피박의 서벌턴 개념은 빈농, 비조합 농민운동, 부족집단, 도시의 하위무산계급뿐만 아니라 시르무르의 라니(The Rani of Simmur)와 같은 중·상류층 여성들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된 것이다. 원래 하층계층을 의미하는 서벌턴이란 개념에 스피박은 여성의 젠더 문제를 접합시킴으로써 계급과 경제적 담론이 간과한 여성의 구체적 실천과 역할을 부각시키려 했다.

미학적 재현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계 여성 이민자들의 삶은 스피박이 말했던 침묵당하는 서벌턴 여성에 대한 정의에 잘 부합된다.

2세대 한국계 미국 극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계 인물들은 일면 미국사회의 지배구조에서 왜곡되고 침묵당하는 서벌턴적 존재처럼 나타난다.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미국인으로 동화하려 했으나 실패한 삼등 시민, 남한사회에서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어 한국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미국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이방인,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이 되었으나 외국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한국사회로부터는 배척당하고 동양 여성이라는 이유로 미국사회에서 차별받는 아내들이다. 그러나 한국계 미국인들의 서벌턴적 감수성은 그들을 억압하는 지배구조의 모순을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는 원천처럼 보인다. 지배담론은 지배담론의 외부, 즉 국가와 담론의 경계지점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서벌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반면,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벌턴은 소수자의 시각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경계인의 위치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인종과 민족과 성별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해체하고 창조할 가능성을 갖는다.

3. 디아스포라의 시선

디아스포라는 경계를 넘어서 흩어진, 말하자면 추방이나 이주 등의 이유로 고향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어원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용어에는 유사 이래 흩어져 살아온 인류의 모든 경험이 축약되어 있다. 즉 유태인, 순례, 망명, 피난, 추방, 이민 등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함의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 자체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포괄적이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전 지구적 자본의 재배치와 더불어 나타난 디아스포라 현상은 이전의 것과 구별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어떤 지역에 대한 문화적 연대로 연결된 이들”을 지칭하는 디아스포라 개념은 “한국인처럼 가족 유대, 도덕성, 풍습, 예술전통의 구조망을 통해 고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민족에게 잘 맞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³¹⁾ 그러나 김성곤과 이소희가 지적하듯이, 이 정의는 고향에 대한 회귀의식과 배타적 경향을 강조하고, 고국으로부터 이탈하

여 이국땅에서 정착하는 이민자들의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적 문화 정체성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미의 디아스포라 개념이 필요하다.

디아스포라 개념을 21세기에 맞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 태혜숙은 디아스포라를 통해 “전 지구화 시대에 새로운 주체화의 시공간적 배경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³²⁾ 특히 그녀는 이민과 노마드와 구별되는 디아스포라의 특성으로서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경계들에 대한 비판의식과 제국과 모국, 둘 모두에 대한 “탈동일시(disidentification)”를 꼽는다. 이러한 특성은 고국에 대한 회귀의식을 갖거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국에 동일시하고 동화하려는 이민자들과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특권층이 부유하듯 이동하는 노마드식 이산이나 코스모폴리탄적 이산과 달리 디아스포라적 이산은 “식민성에서 벗어나려는 포스트 식민 시대의 정치적 위치로부터 구축되며, 구체적인 지역과 연계되지 않는 노마드와 코스모폴리탄과 달리 식민사를 내장한 ‘지역’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녀의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에는 강요된 이동으로 인한 고통과 “게토화의 비이동성이라는 부정의 역사”가 담겨 있음을 지적한 대목이다. 역사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은 디아스포라적 주체들이 이동을 환희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떠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디아스포라의 정치 경제적 지위를 억압받는 민중 혹은 하위주체들에 가깝게 상정하는 듯한 정의를 통해, 태혜숙은 이들이 문학 혹은 문화적 재현을 통해 국가의 경계를 다시 정의하는 새로운 고향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은 억압된 기억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노력과 같다고 주장한다.³³⁾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국계 미국 작품에서 디아스포라적 특징을 찾게 되면 그 지점은 민족(국가)과의 제휴가 박탈당하는 역사적 순간과 파편화된 존재가 맞는 위기상황에서 드러난다. 이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계 미국인들은 민족, 전통, 신화 등과 같은 계통적 요소들이

31) Kim Seong Kon and Lee So Hee, “Introduction”,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Eds. Seoul: IACKS and SNU/ASI,(2004), pp. vi-vii.

32) 태혜숙,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여성의 위치에서 ‘몸으로 글쓰기’: 『여성전사』와 『딕테』를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11권 1호(2003), 236쪽.

33) 태혜숙, 위의 책, 237쪽.

지닌 본래적 의미를 대부분 잃게 되며, 다음 세대의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이 요소들은 낯설고 2차적인 문화가 된다. 이민 세대가 이어지면서 한국계 미국인들은 계통적 요소를 상실하는 한편, 백인 중심적 미국사회에서도 공적인 시민으로 동화되지 못한 채 소수인종집단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와 미국사회 두 곳 모두와 제후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경계인으로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 문학에는 한국적 정체성과 미국사회로의 동화라는 복합적인 상황과 인식이 나타나게 된다.

두 지역에 걸쳐 있는 디아스포라적 존재로서, 한국계 미국인이 인식하는 미국과 한국사회와의 연관성 내지 거리감은 한국사회가 경험한 전쟁, 분단, 일본 식민지배, 남한사회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주의적 지배의 역사를 상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줄리아 조의 작품 『변두리』에서 패니(Panny)의 엄마 이자벨(Isabel)은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이다. 이자벨은 사춘기를 맞은 딸이나 집안일을 등한시한 채 유난히 먹을 것과 가족, 성형, 텔레비전에 집착한다. 백인 비평가들은 이자벨을 한심한 어머니로 평가하지만 그녀가 한국전쟁 후 입양된 고아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자벨의 모습은 한국계 미국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설정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자벨을 입양하여 엄격하게 훈육했던 백인 양어머니는 이자벨의 내면에 열등한 동양 여자아이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전쟁고아로 굶주렸던 기억은 심리적 허기와 애정 집착이라는 무의식으로 고이게 된다. 맥아더 장군의 다큐를 보던 그녀가 딸이 점심으로 차려준 시리얼을 먹으며 “전쟁 배급이나 다름없네”라고 말하는 장면을, 단지 형편없는 식사에 대한 농담으로만 들을 수 없는 이유이다.

한국 입양의 역사는 남한사회의 식민지배 경험과 전쟁으로 인한 남한사회의 혼란했던 역사를 반영한다. 이들의 입양은 자발적 이주가 아니라 강제적 이주로 인한 탈위치(displacement)를 경험한 망명적 디아스포라라는 점에서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고 과거를 기억하는 시도는 곧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에서 겪은 배타성과 인종 차별의 역사를 향해 던지는 문제제기의 성격을 띤다.

IV. 결론

아시아계 미국 연극의 역사는 인종과 재현에 대한 정치적 발전과정이라고 할 만큼 자의식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연극운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과정은 발생 초기에 백인 중심 무대로부터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을 구출하여 '사실대로' 재현하는 일로부터, 다양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차이를 살려내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변화하며 여전히 진행중이다. 아시아계 미국 연극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사회의 혼종적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이자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이후 등장한 2세대 한국계 미국 작가들은 인종의 문제에 천착하지 않고 미국사회를 폭넓게 다루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계 미국 연극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2세대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성 노와 줄리아 조의 작품에서는 90년대 이후의 혼종적 문화의 흔적뿐만 아니라 한국성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인종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한국적 감수성은 한국계 이주민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책적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사회에서 태어난 2세대 작가들에게, 식민지배, 전쟁, 경제적 고통, 인종차별 등을 겪었고 미국사회에서 소수인종의 지위를 강요당했던 부모세대의 삶은 현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이면을 통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 결과 그들의 작품에서 1세대의 기억과 2세대의 성찰이 어우러진 한국적 감수성이 창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새천년에도 여전히 한국계 미국 연극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성 노와 줄리아 조의 문제작들은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한국계의 민족 문화적 영향을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종시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고민은 한국계 미국 문학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의식이자 중요한 작품주제이지만, 90년대 이후로 한국계 미국 극작품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정체성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잡종적 문화와 서벌턴적이고 디아스포라적 자의식을 보이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문 캐서린, 『동맹속의 섹스』. 이정주 옮김, 삼인, 2002.
-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김혜신 옮김, 돌베개, 2006.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203-212쪽.
- 이미원, 「한국계미국대표 극작가와 그 작품세계」. 『한국연극학』 37호, 2009, 5-60쪽.
- 임진희, 「한국계미국문학의 한국성」. 『현대영미소설』 14권 2호, 2007, 155-177쪽.
- 정은경, 『디아스포라 문학』. 이룸, 2007.
- 태혜숙,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여성의 위치에서 '몸으로 글쓰기': 『여성전사』와 『티테』를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11권 1호, 2003, 235-255쪽.
- 홍경표, 「미주한인문학의 현황과 전망」. 『국제한인문학연구』, 월인, 2004, 234-235쪽.
- Berson, Misha, Ed., *Between Worlds: Contemporary Asian American Plays*.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1990.
- Chuh, Kandice & Karen Shimakawa. Eds., *Orientation: Mapping Studies in the Asian Diaspora*. Durham: Duke UP, 2001.
- Graydon, Royce, "Broader Identities; For Tony-winning Playwright David Henry Hwang, ethnicity is no longer center stage in Asian-American Theater." *Star Tribune(MN)*, Aug. 22, 2004. <http://highbeam.com/DocPrint.aspxDocId=1G1:121156482>.
- Kim, Elaine, *Asian American Literature*. Philadelphia: Temple UP, 1982.
- _____, "Foreword". *Reading the Literatures of Asian America*, Eds, Shirley Geok Lin Lim and Amy Ling, Philadelphia: Temple UP, 1992, pp. xi- xvii.
- _____, "Hybridity and Homeland: Contemporary Korean American Literary and Visual Art". 『미주한인이민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북미주 지역의 한국인"』 자료집(2002), 연세대학교 연세국학연구단, pp.101-111.
- _____, "Korean American Literature". *An Interethnic Companion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Ed. King Kok Cheung, New York: Cambridge UP, 1997, pp.156-191.
- _____, "These Bearers of a Homeland". *Korea Journal* Autumn, 2001, pp.49-200.
- Kim, Lili, "From Desirable Orientals to Enemy Aliens: World War II and the American Conceptualization of Korean American as a Race". 『미주한인이민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북미주 지역의 한국인"』 자료집(2002), 연세대학교 연세국학연구단, pp.31-52.
- Kim, Seong-Kon and Lee So Hee,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Eds. Seoul: IACKS and SNU/ASI, 2004.

- Lee, Esther, *A History of Asian American Theatre*. New York: Routledge, 2006.
- Lee, Josephine, *Performing Asian America*. Philadelphia: Temple UP, 1997.
- Lowe, Lisa, *Immigrant Acts: On Asian American Cultural Politics*. Durham: Duke UP, 1996.
- Shimakawa Karen, "Ghost Families in Sung Rno's *Cleveland Raining*". *Theatre Journal* 52, 3(2000), pp.381-96.
- _____, "Asians in America: Millennial Approaches to Asian Pacific American Performance". *JAAS*, 3. 3(2000), pp.283-299.
- Spivak, Gayatri Chakravorty,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London: Macmillan, 1988, pp.271-313.
- You, Clare and Ha, Yangwon, "Korean American Literature and the Visual Arts: These Bearers of a Homeland".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Eds. Seong-Kon Kim and So -Hee Lee, Seoul: IACKS and SNU/ASI, 2004, pp.212-258.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60927172814992&p=yonhap>

국 문 요 약

아시아계 미국 문학사에서 2세대 한국계 미국 극작가들은 독특한 위상을 갖는다. 1990년대가 지난 후에야 늦깎이로 등장한 2세대 한국계 미국 극작가들은 아시아계 미국 연극계에 포스트모던한 시학을 제시하며 새로운 연극 미학을 선도하고 있다. 그들의 작품은 미국의 혼종적 문화를 반영하듯, 기존 작가들의 단일한 민족 정체성과 과거 지향적 성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듯 일견 보이지만, 한국성과 관련된 문화적 유산들을 여전히 끌어안으려 한다는 강한 느낌을 준다. 그 가운데 성 노와 줄리아 조의 작품에 나타난 미학적 특징은 한국적 감수성의 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 감성은 한국계 이주민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세대 작가로서 성 노와 줄리아 조가 다루는 한국성, 고향, 과거에 대한 기억은 1세대 작가들의 태도와 분명히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는 시대적 상황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한국계 미국인 역사에 대한 성찰의 차이와 90년대 이후로 변화한 미국사회의 상황에 따른 시대적 반영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세대 한국계 미국 연극에 나타난 특징을 살피는 기초적 단계로서 90년대 이후 한국계 미국 연극이 등장하기까지의 문화적 배경과 논쟁점을 살펴보는 일종의 문화인식 지형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투고일 2010. 4. 9.

수정일 2010. 5. 24.

게재 확정일 2010. 6. 7.

주제어(keyword) 한국계 미국 연극(Korean American Theatre), 아시아계 미국 연극(Asian American Theatre), 한국계 미국 극작가(Korean American Playwrights), 성 노(Sung Rno), 줄리아 조(Julia Cho), 잡종성(Hybridity), 서벌턴(Subaltern), 디아스포라(Diaspora)